

진안홍삼, 미국 수출 쾌거

FDA 승인 절차 완료 초도물량 10만불 선적

진안군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삼산업이 최초로 미국 FDA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초도물량 10만불 수출을 시작했다.

진안군은 침체기에 있는 국내 홍삼 산업을 극복하고, 해외 수출을 위해 지난해 5월 미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동부 LA주를 집중 공략하여 한인 무역 업체인 (주)바이오크론과 진안홍삼 유통 협약을 맺는 등 진안홍삼 수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수출을 위한 FDA 승인을 얻는데 국내의 제조방법, 표기방법 등을 미국 규격에 맞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 되었으나 지난해 12월 승인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출길에 오른 것이다.

이번 10만불 수출 물량은 전량 H-MART 진안홍삼 전문 판매장 홍보 및 판매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입점수 증가와 함께 수출량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출품은 전량 군수품질인증품, 명인·명품, 홍삼연구소 기술개발품, 특허 허용으로 구성되어 품질 우수성을 통한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라이다. (주)바이오크론사는 미국 LA시내에 진안홍삼 미국 홍보관 및 총괄 운영 본부를 지난해 11월 개설하고, 전문 판매점으로 미국 동부권에서 56개를 운영 중인 대표적인 대형 한인 마트인 H-MART 입점을 홍삼관련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며 확정 지었다. 특히 또 다른 대형 한인마트인 한남 체인 입점을 추진하는 등 진안홍삼의 미국내 판매 활성화가 본격 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진안홍삼 미국 홍보관 및 총괄 운영 본부를 운영하는 (주)바이오크론의 캐서린 김 대표는 "진안홍삼 제품이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대기업 제품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미국을 기점으로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남미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항로 군수는 "지난해 12월 제주 바오젠거리에 홍보관을 개설하여 대중국 수출 판로 개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에 진안홍삼 서울 홍보관 및 수출센터 개설을 통하여 서울·경기권 판매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등 과감하고 체계적인 유통·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 경천저수지 탐방길 생겼다

700m 구간 첫 선... 2021년까지 14km 조성

완주군 경천저수지에 스토리를 입힌 700m 구간의 첫 번째 탐방길(갈매길)이 선을 보인다. 군은 침체된 완주 북부권의 관광거점화 일환으로 경천저수지 주변 탐방길 일부 구간(700m)을 이달 초 조성 완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탐방길은 저수지 주변에서 채집한 돌로 길을 따라 낮은 담장을 쌓아 인근 백제시대 고성산성의 느낌을 주고, 방문객들은 자신만의 돌담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요 구간에 봉어늬시, 솟

대 등 다양한 조형물을 조성, 탐방객들에게 재미와 추억을 남기도록 만들었다. 탐방길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인근 갈매봉을 잇는 '갈매길'로 이름지어졌다. 경천저수지 탐방길은 화평습지, 남동습지 등 생태자원 및 경관이 우수한 저수지 주변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둘레길로, 총 연장은 14km에 이른다. 완주군은 탐방길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따뜻한 공동체 회복에 집중할 터”

무주군민 화합 신년인사회 황정수 군수 등 2백여 명 참석

2017년 무주군민 화합 신년하례회가 지난 20일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발전협의회(회장 권영철)가 주최한 것으로 황정수 군수, 유승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칠연골 메아리의 색소폰 연주를 듣고 무주군 홍보 동영상 함께 시청했으며 소망 떡을 자르며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황 군수는 “올 한 해 7차 산업화에 매진하면서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키우고 따뜻한 공동체, 정감 넘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2017 무주군민 화합 신년하례회에서 황정수 군수와 유승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 등이 참석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반딧불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도약, 마을로 가는 축제 활성화, 그리

고 반딧불 농·특산물 2백여 매출 성과를 이어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용득 장수군수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다.

장수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장수군은 지난 20일 설 명절을 맞아 최용득 군수를 비롯한 장수군청 직원, 장수시장 상인회 및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장수군지부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수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전통시장에서는 제수용품과 다양한 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

음을 적극 홍보하고, 장수시랑상품권 구매 및 내 고장 상품 우선구매 홍보도 펼쳤다. 이날 최용득군수는 장수시랑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지역 상가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이 애용해 주시길”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어린이의회 안전 정책 반영

건의함 설치... 둔산공원 악취문제 등 아동정책 추진

전국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완주군이 올해부터 어린이들의 제안사항을 정책에 반영·추진한다.

지난 20일 완주군은 지난해에 구성된 어린이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전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완주군 둔산공원 악취문제를 비롯해 비장애인·장애인 놀이터 안전점검, 권리교육 확대 실시, 위생스티커 부착, 건의함 설

치, 참여토론회, 자전거 보호장비 점검 및 의무착용, 문화예술활동 육구조사 등이다. 이 중 건의함 설치의 어린이의회 참여위원회(6명)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건의함 설치를 제안했다. 2017년 본예산에 6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됨에 따라, 올 3월 첫 학기가 시작되면 어린이 의원들이 직접 디자인한 건의함이 제작·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위원회(7명)의 문화예술활동 육구조사, 장애인

이 놀이터 안전점검 등을 포함해 교육위원회(6명)의 위생스티커와 권리교육, 안전위원회(5명)의 자전거 이용시 보호장비 의무착용 등도 완주군의 아동정책에 반영·추진될 방침이다. 군은 특히 어린이의회 가결내용 추진을 위해 완주군은 아동정책 담당관을 배치해 가결내용 추진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외에 군은 청소년의회 선거제 투표와 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민주학교 등 올해 아동친화도시 정책 참여사업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성백준 감사 초청 강의

진안군은 지난 20일 겨울철 농간기를 이용해 진안읍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자살예방센터 성백준 감사의 강의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을 보건소 강당에서 실시했다.

생명사랑지킴이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각 마을 대표자가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주민 중 자살 의도자가 보내는 징후들을 사전에 포착하여 적절한 대응과 도움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보고, 듣고, 말하기' 주제로 '보기'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빨리 알아차리고 '듣기'를 통해 자살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말하기'를 통해 안전 계획을 세우고 연계하는 자살예방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1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안군도 2011년에는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적도 있었으나 이후 자살률이 조금씩 떨어져 2015년도에는 전북 지역 6위를 차지하였지만 여전히 높다. 이항로 군수는 “군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 등 적극 행정과 지역주민들의 세심한 관심을 통해 2017년에는 자살 없는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농협, 정기총회 개최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이 제46기 정기총회를 지난 20일 장수농협 2층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수농협 대의원과 임직원이 함께 모여 지난 1년간 장수농협의 성과를 최종 승인하는 이 자리에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조인갑 부본부장과 박경준 장수군지부장을 비롯한 유기홍 군의회위원장, 양성빈 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장수농협은 총 자산 3천9백5십3억여원의 경영기반을 구축하였고, 농업인 조합원 대상 영농자재 지원비 7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고도 12억여원의 건전결산을 달성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군민과의 희망대화 성료

이항로 군수, 청정환경 보전 프로젝트 적극 참여 독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 20일 안전면을 마지막으로 '2017년 군민과의 희망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군수는 지난 13일 용담면을 시작으로 6일 동안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군민과 격의 없는 소통행정을 펼치고, 민선 6기 전반기 성과를 설명과 다양한 군 발전방안을 청취하여 하반기의 군정 방향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청정 환경을 지켜내지 못하면 진안의 미래는 없다”는 신념으로 지

금까지 추진해온 진안고원 청정환경보전 프로젝트를(쓰레기 3NO운동, 벼농사 우렁이 농업, 농기계 폐오일 무료교환, 친환경 제설제 사용)를 더욱 확대 추진하여 청정환경 보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군민들의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이항로 군수는 “마이산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해 진안고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진안고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농가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블로그

무주군, 결핵 예방교육 실시

무주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경로당을 돌며 결핵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건의로원이 무풍면 실미, 적상면 치목, 안성면 주고, 적상면 길왕, 적상면 사천마을에 소재해 있는 경로당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결핵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및 건강관리법 등이 공유됐으며 결핵감염 및 발병 시 증상 안내, 그리고 유증상자에 대한 개별상담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객담통을 배부하고 검진방법 등을 안내해 관심을 모았다.

임미경 예방의약 담당은 “지난해에도 도내에 1,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결핵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결핵은 영양 불균형과 불결한 생활환경 때문에 발병이 되고 태아에게도 감염이 되는 병인만큼 주민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명품사과 NS홈쇼핑 런칭

장수군은 지난 19일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NS홈쇼핑에 장수사과를 런칭시켰다고 밝혔다.

NS홈쇼핑은 저가 농산물 판매라는 홈쇼핑 이미지를 탈피하고 프리미엄급 농산물 판매라는 기획의 첫 시도로 장수사과를 선정했다.

장수사과는 해발 400m 이상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사과로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하며 향이 좋아 명품사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방송을 통해 판매한 사과는 400g 내외의 설 선물용 특품 사과로 당도는 14°Bx 이상이며, 착색도 80% 이상으로 백화점에 판매되는 동일한 고품질 사과를 6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는 평가이다.

장수군은 1990년부터 사과를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기 시작해 현재 854ha가 1,057ha를 재배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박성일 완주군수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해 대한적십자 전북지사 김광호 회장과 대한적십자 봉사의 지구협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최근 급속히 퍼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및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내 상황 속에서도, 전북도는 모금 실적 57일만에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광호 회장은 특별회비를 전달하면서 “적십자회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퍼져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렇게 지지단체에서 앞장서 모금에 동참해주셔서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성일 군수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이서면 복지허브 가속화

완주군 이서면 맞춤형복지팀은 2017년에도 이서면 지역주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찾아가는 서비스의 기동력을 위하여 작년 11월 읍면동 복지허브와 33개 선도지역에 제공된 복지차량을 이용하여 주3회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추진하여 6,800여 세대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완주군 특수시책인 사회 복지전문가 맞춤형사례관리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